데스크 시각

‘데자뷰(deja vu) 1987’?

박 치 경
서울취재본부 부본부장

지난 1987년 대통령선거가 떠올려진다. 6·4 지방선거를 앞둔 현재 정국이 그렇다는 말이다.

혹자는 이를 ‘데자뷰 1987’이라고 부른다. 프랑스어인 데자뷰는 기시감(旣示感)을 뜻한다. 처음 본 것을 마치 이미 본 것처럼 느끼는 현상이다.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인 ‘새정치연합’으로 양분된 야권이 새누리당과 3각 대결을 벌이는 작금의 흐름은 1987년 제13대 대통령선거와 흡사하다.

당시 대선으로 돌아가 보자. 1987년 대선은 6월 항쟁의 결과로 만들어진 현행 헌법에 따라 1972년 10월 유신 이후 최초로 치러진 직선제라는 큰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후보는 12·12 쿠데타 주역 중 한명인 노태우, 대표적인 민주인사인 ‘양김’(김대중·김영삼) 및 김종필이었다.

결과는 여당인 민정당 노태우 후보가 36.6%를 얻어 당선되었다. 민주세력 후보 단일화에 실패한 김영삼은 28%로 2위를, 김대중은 27%로 3위에 머물렀다. 양김의 득표율을 합하면 55%로 노태우를 크게 상회했다.

야권분열로 군사정부 연장

노태우의 득표율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직선을 통해 당선된 대통령 중 가장 낮았다. 선거 직전 터진 KAL기 폭파사건, 지역대립 구도 등이 큰 영향을 미쳤지만 야권 단일화 실패가 결정적 요인이었다. 야권이 제 욕심만 내는 바람에 군부정권을 5년 연장시켰다는 비난에 직면했다.

이후 27년이 흘러 지방선거를 3개월 남짓 남겨놓은 상황은 어쩌면 이리도 쏙 빼닮았을까. 여당인 새누리당에 맞선 야권이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으로 양분돼 있는 모양새는 1987년 김대중·김영삼의 분열상과 너무나 흡사하다.

하지만 현 야권의 양태는 과거와는 자못 다르다. 13대 대선에서는 DJ(호남)와 YS(부산 경남)가 자신의 정치적 지역을 기반을 바탕으로 갈라섰지만 지금은 민주당이 강세인 호남을 중심으로 새정치연합과 대립하는 양상이다. 따라서 이 같은 구도가 굳어진 채 지방선거가 치러진다면 야권의 참패와 새누리당의 ‘어부지리’는 기정사실이나 마찬가지다.

‘1987 데자뷰론’을 꺼낸 것은 일방적으로 야권을 옹호하기 위함이 아니다. 또 현 여권을 13대 대선 때 군 출신 후보를 낸 당시 민정당과 비교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박근혜 정부가 2년차를 맞아 하나 둘씩 전향적으로 바뀌는 것은 긍정적인 변화다. ‘원칙론’에 의한 남북관계 재정립과, ‘공정’을 위해 변화를 모색하는 우리 사회의 지향점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지방선거에서 야권이 힘을 모아야 하는 당위성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새 정부 출범 때부터 응어리진 국민과의 ‘불통’, 지나친 원칙 추구가 불러오는 권위주의로의 회귀 움직임은 야당의 적절한 견제를 요구한다. 박근혜 정부의 슬로건인 ‘국민행복’을 위해서라도 야당이 적절한 힘을 가져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새삼 떠올리게 한다.

분열 세력은 반드시 진다

그렇다면, 야권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민주당은 대한민국 정통 야당의 버팀목임을 자임하고 있다. 안철수 신당은 새 정치를 통해 국민에 희망을 주고, 국격을 올리자고 목소리를 높인다. 둘 다 충분한 명분이 있다.

그러나 동시에 둘은 결함도 노출하고 있다. 민주당은 ‘적자론’과 함께 조직을 갖췄지만, 더 이상 신선하지도 않고 기대감도 주지 못한다. 반면 새정치연합에 대한 국민의 호기심은 크지만, 유권자의 마음을 표로 엮을 그물망이 아직은 없다. 양자는 장단점을 서로 나눠갖는 ‘교집합’ 상태다.

지방선거에서 야권이 이기기 위한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다. 국민의 권리와 행복을 지켜줄 견제세력으로 제 역할을 하려면 서로 손을 잡아야 한다. 최근 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이 한 라디오 방송에서 “야권이든, 여권이든 분열한 세력이 승리한 사례를 본 적이 없다”고 말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거듭 밝히거니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파를 옹호할 마음은 추호도 없다. 다만,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은 각별하게 새겨야 할 부분이 있다. 1987년 대선에서 국민의 열망을 외면한 채 분열한 야권이 군사정권을 5년 늘려준 ‘오점’을 남겼다는 사실을 말이다.

/unipark@kwangju.co.kr

은펜칼럼

상무 소각장, 애물에서 보물로…

박 홍 근
포유건축사사무소 대표

광주 상무 신도심에 있는 상무 소각장이 폐쇄된다고 한다. 인근 주민들과의 갈등과 운영상의 여러 문제가 원인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시설은 불과 20여년 전에 계획 되었고, 가동 된지는 10여년밖엔 안 된다. 신도심은 1991년부터 구체화되었고, 소각장은 2002년부터 지역에 온수를 공급 했다.

사람이 사는 곳에서 쓰레기와 배설물 발생은 피할 수 없다.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이다. 본인들이 살아있기에 생겨난 것인데 이의 처리는 나 몰라라 한다. 아니 대부분 기피 대상으로 여기고, 혐오시설이라 하여 나의 근처에는 없기를 바란다. 있으면 폐쇄를 요구한다. 쓰레기는 삶속의 필수 부산물이다. 잘 처리되도록 시설을 만들고, 관리를 한다면 우리와 동행하는 삶의 시설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애물단지다.

오스트리아 출신인 건축가 훈데르트바서(1928~2000)에 의해 설계된 비엔나에 있는‘슈피텔라우 소각장(1991년 완공)’과 일본 오사카에 있는 ‘마이시마 소각장(2001년 완공)’이 있다. 주거 밀집지역에 있지도 않고, 최저가가 아닌 최고의 시설비용으로 완벽에 가깝게 지어졌다. 공장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동화 속 요정들의 집처럼 보인다. 주변은 공원으로 꾸며져 지역에 개방되고, 학생들의 소풍과 견학장소가 되며, 친환경교육장으로 쓰인다. 그곳에서 발생되는 전기과 온수는 주변에 공급되고, 나머지는 매각하여 운영 수입원이 된다. 그리고 관광명소까지 되었다.

그런데 그들보다 늦게 추진되어 지여진 상무 소각장은 애물단지가 되어 폐쇄될 운명이다. 심지어 철거를 주장하고 있다. 누구의 책임인가? 가장 큰 책임은 행정 최고책임자가 방향을 잘못 잡고 열심히 노력만 한 결과다. 그 다음은 이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전문가다.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은 말했다. “나는 ‘천재란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은 노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다. 그것은 1%의 영감이 없다면 99%의 노력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의미다.”라고…. 여기에서 ‘영감’은 제대로 된 목표와 방향을 잡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아무리 노력을 했어도 방향이 잘못 되었다면 이는 재앙이 될 수도 있다. 어찌되었든 애물단지가 된 상무소각장의 장래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한다.

첫째, 소각장을 폐쇄 한다면 건물 그 자체를 활용하여 행정실패와 도시계획의 중요성에 대한 산 교육장으로 만들자. 다크 튜어리즘이라는 말이 있다. 잘못된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그간의 모든 과정을 공개하고 전시하여 답사코스가 되도록 만들자. 생생한 교육공간으로도 활용하자. 여분의 공간은 부족한 문화예술 공간으로 이용하자. 목적이 다른, 색다른 건물에서 시작된 공간은 그간 체험을 할 수 없었던 멋진 장소가 될 것이다.

둘째, 소각장 시설을 계속 사용한다면 완벽히 개조하고, 문화의 옷을 입히자. 오염물질 처리 시설은 예산을 따지기 전에 완벽한 처리를 원칙으로 개선 한다. 예산을 핑계로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며 완성된 시설들은 그 당시 행정의 치적은 될지 모른다. 그러나 나중엔 시민들의 더 큰 짐이 되고, 더 큰 예산 낭비를 초래한다는 것을 많이 봐왔다. 건물의 외관은 공장처럼 보이지 않게 하자. 친환경적이고 친근한 이미지를 갖게 하자.

셋째, 철거는 안 된다. 이는 역사를 지우는 행위다. 역사로부터 배우는 민족은 발전을 하지만, 잘못된 역사를 되풀이하는 민족은 희망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우린 잘못된 역사를 덮거나 외면하기만 했지, 교훈을 얻고 개선하는 것엔 너무 소극적이었다. 이번엔 이를 극복하는 계기로 삼자. 잘못된 것도 역사이고, 잘못된 판단으로 열심히만 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어두운 자산’이기 때문이다.

은펜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싣는 코너입니다.

기고

얼어붙은 저 강물도 풀리는데

서 삼 석
전 무안군수

오늘(음력 1월20일)은 절기상 입춘 다음 가는 우수다. 얼었던 대동강 물도 풀린다는 날이다. 겨우내 꽁꽁 얼었던 얼음장 밑으로 소리없는 봄은 어김없이 찾아 오고 있다. 지난겨울 한파와 폭설로 많은 피해를 안겨 주었던 동장군의 기세가 서서히 밀려 간다는 뜻이기도 하다.

춥고 헐벗고 굶주림에 시달려야 했던 이들에게 한 줌 담 밑의 햇볕이 움츠렸던 어깨를 펴게 해주기도 하는 때이다. 작년에 담근 묵은 김장김치가 맛을 잃어가고 달래 냉이가 새 입맛을 찾게 하며 남쪽에서 불어오는 스치는 바람도 차지만은 않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봄, 여인의 치맛자락을 타고 우리 곁에 성큼 다가서고 있다.

돌이켜 보면 세상 얼어붙었던 것들이 강물뿐이었겠는가? 남북이 얼고, 지역간 계층 간이 얼고, 소통이 얼고, 농어민과 서민·도시빈민들의 가슴과 마음이 시리도록 얼었다. 콘크리트 위 노숙인의 심장은, 쪽방촌 하루살이 인생은, 일자리를 찾지못한 청년 백수들의 하소연은 언제나 풀릴 것인지 기약이 없어서 탈이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어김없이 다시 뜨건만 차디차게 얼어버린 국민의 마음은 언제나 어떻게 풀릴 것인지? 사는 이치로 보면 갑이 을을 위해 먼저 손을 내밀고, 국가가 국민을 보듬어야 하는데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 들어 더욱 슬프게 한다.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그래서 행복하십니까?’ 오죽했으면 이런 말들이 횡횡했겠는가? ‘안녕하지 못하다’는 세상에 국민에게 평안을 주고 새로운 희망을 불어 넣어 주기 위해서라도 올 봄 만큼은 풀 것은 과감하게 풀어주고 그래서 상생을 도모케 하고 조일 것은 더욱 조여서 근간을 바로 잡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얼마 안 있으면 백두산의 개구리도 잠에서 깨어나고 한라산의 진달래도 장관을 이루며 매화향이 섬진강을 녹이고 산수유가 지리산을 휘감아 돌 텐데 정녕 새봄에 새 희망은 있는 것인지 적잖은 고민이다.

풀려라 대동강아 흘러라 한강수야, 맺힌 매듭 다시 풀고 꼬인 실타래도 슬슬 풀어서 멍 맺힌 가슴을 녹여 사람답게 살게 하고 실낱 같은 소망의 나래를 펴고자 하는 모든 이의 소원을 들어 주거라.

강물도 얼고 녹아 쉼없이 흐르는데 분단의 고통도 여전하고 꽉 막힌 정국에 가벼워지는 지갑은 누가 풀고 또 채워 줄 것인가를 묻고 또 묻는데 답해주는 이가 없다. 가로막아도 넘쳐흐르고 생긴 대로 따라 순응하며 흐르는 것이 강물인데 사람들은 어찌 거꾸로 가고 역발상만 하려 달려드는지 모르겠다. 어차피 흘러야 할 것이라면 편하게 흐르도록 해주어야 한다. 목적지에 닿을 때까지 생각한데로 가도록 해야한다. 형상이 바뀐다고 물이 물 되지 술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제대로 가야할 것을 거역하면 반드시 재앙이 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입춘에 대길(大吉)했으니 우수에 대통(大通)해서 국민도 국가도 평안하고 융성하고 정상적이지 못한 것들을 쏵 쓸어 가는 우수의 강물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봄을 기다리는 여심에 상처를 주지 말고 산동네 달동네 논밭에서 바다에서 희망찬 갑오년 봄의 교향곡이 울려 퍼지고 오붓한 오솔길 사이사이로 언 발을 녹여주는 훈풍이 불었으면 참 좋겠다.

소치에서 승전보가 울리고 금강산에서 눈물의 바다가 이뤄지고 일터에서 희망이, 병상에는 회복이, 젊은이가 안심할 수 있는 삼천리 금수강산에서 웃음꽃이 만발하는 아름다운 한반도가 이 봄을 장식했으면 한다.

늘 그랬듯이 문제는 사람에게 있다. 답도 또한 사람에게 있으니 생각을 바꿔서 세상을 바꿔 가보자. 그리하려면 강물보다 사람이 더 빨리 풀려야 되겠구나.

애완동물 기생충 전염 안되게 예방 철저히 해야

며칠 전 이웃집에 갔다가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다. 그 집에서는 애완견을 키우고 있었는데 강아지가 토해놓은 배설물을 보니 그 토사물에 라면처럼 꼬불거리는 하얀 물체를 본 것이다.

집 주인에게 그게 뭐냐고 물었더니 동물병원에서 개회충이라고 알려줘서 지금 구충제 약을 먹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나마 강아지가 회충에 걸린 걸 알아차리고 약을 먹이고 있다니 다행이라고는 말했으나 그 집에서도 아이들이 평소에 아침저녁으로 강아지를 물고 빨고 껴안고 같이 잠도 자고 그랬기 때문에 은근히 걱정되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들으니 그 강아지가 내 곁으로 오는 것조차 불결하고 왠지 께름칙했다. 더군다나 그 집에 우리 아이들의 또래가 있어서 평소에도 자주 놀러 가곤 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은근히 걱정이 되었다.

집에 돌아와서는 손바닥이 발바닥이 되도록 비눗물로 얼마나 씻었고, 밖에서 돌아온 아이들에게도 당장 깨끗이 씻으라고 일렀다.

부모들은 자녀 위생상에 관심이 좀 있는 사람이라면 1년에 봄과 가을에 구충제 정도는 먹인다. 심지어 두세 달에 한 번 정도 구충제를 먹이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그런데 사람이 기생충에 감염되는 경로 중 하나가 바로 이 애완동물을 키우다가 발생한다니 애완동물 키우는 사람들이 제대로 알고는 있는지 궁금하다.

요즘 애완동물을 많이 키우는데 그 덕분에 이 사람들에게 기생충 감염이 되고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키는 건 아닌지 은근히 걱정된다.

애완동물을 키우는 집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가정 내에서 철저히 기생충 예방에 힘쓰고, 철저히 약을 복용해 제2, 3자에게 엉뚱한 전염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자기위생 관리를 해줄 것을 요청하고 싶다.

▲강석훈·광주시 남구 주월동

社 說

경주 대학생 참사, 이 지역도 경각심 가져야

언제까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참사가 되풀이되어야 하는가. 17일 밤 경북 경주의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에서 부산외국어대 신입생 500여 명이 오리엔테이션을 받던 중 쌓인 눈에 지붕이 무너져 대학생 등 10명이 숨지고, 124명이 부상을 당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꿈에 부푼 대학생활 시작을 앞두고 목숨을 잃은 학생들과 그 부모·가족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다.

이번 사고 역시 예견된 인재(人災)라는 점에서 충격을 금할 수 없다. 관계당국과 리조트 업체, 학교와 학생회 등이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얼마든지 참사를 피해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사고 무렵 영동지방을 비롯한 경주 등지에는 최고 75㎝의 눈이 내린 상태였다. 그러나 리조트 측은 강당 건물이 하중에 취약한 스티로폼 샌드위치 패널 구조인데도 지붕에 쌓인 눈을 치우거나 강당 사용을 금지하는 등의 어떠한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특히 리조트 강당은 단체 행사가 주로 열리는 다중 이용시설인데도 지난 2009년 완공 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 이는 관리·감독 기관인 경주시의 직무유기로 봐야 한다.

학교의 무관심과 학생회의 무모함도 비난을 면키 어렵다. 이번 행사를 놓고 대학과의 갈등으로 총학생회가 단독으로 진행한 것도 문제지만 1000여 명이 참석한 행사에 학교 측이 교수들을 보내지 않았다니 안전불감증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케 한다.

관계당국과 경찰은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며, 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한 규정도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

아울러 광주·전남지역 각 대학들도 이번 기회에 관행처럼 이어져 오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대해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필수과정이라면 학교 책임 아래 학내에서 실시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한전 ‘에너지밸리’ 지역발전 새 동력으로

올해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하는 한국전력이 나주에 미국 실리콘밸리 수준의 ‘에너지밸리’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아 지역민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국내 최대의 에너지기업이 내놓은 야심찬 청사진이어서 더욱 그렇다.

조환익 한전 사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시책에 따라 단순히 본사를 옮기는 데 그치지 않고 도요타자동차가 도요타시를 자동차타운으로 만들었듯이 나주를 에너지허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조 사장의 발언은 나주로 이전하는 한전을 비롯, 전력거래소와 한전KPS, 한전KDN 등 4개 기관 외에도 에너지 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을 적극 유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는 앞서 논란이 돼왔던 한전의 ‘분할 이전’이 아닌, 정부 방침대로 ‘전체 이주’를 사실상 확정한 직후 나온 것이어서 지역발전의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전과 산하 3개 기관 직원 3343명은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나주로 이전할 계획이다.

광주일보는 신년 아젠다로 공동혁신도시를 비롯한 호남선 KTX, 아시아문화전당 등 올해 완공되는 광주·전남 3대 역사(役事)를 설정, 진행상황과 대책 등을 집중 점검하는 기획시리즈를 연재했다. 이들 사업을 통해 지역의 새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혁신도시의 경우 정주 여건 조성과 함께 수백 개에 이르는 이주기관 협력업체와 연구기관이 이전해 클러스터를 구축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내는 일이 가장 큰 과제로 꼽혀왔다. 한전의 ‘에너지밸리’ 조성은 이러한 고민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그랜드 디자인이다.

따라서 한전은 오는 24일께 발표될 세부 방안에 혁신도시가 국내 최대의 에너지 산업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담아야 한다. 광주시와 전남도, 나주시 등 지자체들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판정 불복

이봐, 심판!/ 대체 눈이 어디 달려있는 거야!/ 내가 어제 정어리 통조림을 먹었는데/ 너보다 훨씬 괜찮았다고.

1981/ 4/ 10「야쿠르트 슬로워즈 시집」에서

일본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와 문학평론가 이토이 시게사토가 함께 쓴 책 ‘소울 메이트(Soul mate)’에 나오는 구절이다. 여러 에피소드 중 ‘정어리(oil sardine)’편에 등장하는 이야기인데, 요즘 온 국민을 TV 앞에 붙들어두고 있는 소치동계올림픽에서도 판정불복이 잇따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문득 생각이 났다.

간장에 졸여져 금속 캔에 담긴 정어리의 ‘허여멀건 한’ 눈동자를 ‘제대로 판결도 못하는’ 심판의 둔한 눈에 빗댄 건데, ‘홀로 분노를 삼키며 중얼거리는’ 소시민의 모습이 연상돼 무척 인상적이었다.

심판의 애매한 판정이나 오심은 경기의 흐름을 결정적으로 바꾸어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오랜 시간 피땀 흘려 운동해 온 선수들이 이로 인해 끝내 패하게 된다면 너무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난 2012년 런던올림픽 펜싱 여자에페 준결승에서 경기 종료 1초를 남기고 경기장 시계가 멈춰, 결국 결승에 진출하지 못한 신아람 선수가 목놓아 울었던 기억이 난다. 당시 TV를 보던 전 국민이 신 선수와 함께 울고 분노했던 장면이 눈에 선하다.

지금이나 옛날이나 승부조작은 시빗거리였다. 신성하게 여겨지는 고대 올림픽도 사실은 뇌물과 부정으로 얼룩졌다는 것이 정설이다. 상대 선수에게 저주를 걸거나, 격투기 경기의 경우 아예 상대 선수를 돈을 주고 사 승부를 조작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물론, 비슷한 사람들끼리 우열을 겨룬다는 점에서 승부조작이나 심판의 오심이 사라지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진짜 문제는, 국가 전체를 상대로 일어나는 승부조작, 그리고 오심이다.

최근 재벌에 대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양형이 되풀이되고,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연루된 경찰 고위간부가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을 보며 한마디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이봐 심판, 대체 눈이 어디 달려있는 거야?”

/홍행기 경제부장 redplane@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鎬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경 제 부	2200-663	경영지원본부	2200-515
〈대표 FAX	222-4918〉	문화 1부	2200-661	문 화 사 업 국	2200-541
편 집 부	2200-649	문화 2부	2200-651	〈F A X	222-8005〉
정 치 부	2200-612	여론매체부	2200-621	〈F A X	222-0195〉
〈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광고마케팅국	227-9600
사 회 부	2200-616	사 진 부	2200-693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프 로 젝 트 팀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